

# '死고 도로 魔의 구간' 29곳 주민은 불안 불안

### 2012년 한 해에 사고 414건·사망 11명·부상 757명

### 광주·전남 교통개선사업 예산 3분의 1로 줄어 차질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교통여건을 개선할 뿐 근본적인 개선은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사고 다발 지역'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도로를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

14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기본개선계획자료에 따르면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도로로는 광주 13곳, 전남 16곳 등 모두 29곳(25개 지점·4개 구간)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해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광주 5건 이상·전남 3건 이상) 중 인적·물적피해가 가장 큰 지점 및 구간과 교통여건을 개선한 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지점 및 구간 등을 종합해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점 및 구간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긴다.

지난 2012년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광주·전남지역 29곳 지점 및 구간

이 같이 이들 지점 및 구간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작업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작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올해 교통여건 개선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고작 5억 9000만 원에 불과해 해당 지역 도로 시설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부족한 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빚어온 일로, 이마저 지난해 17억6200만 원보다 33.5% 감소했다. 전남도도 지난해 33억5400만 원의 32.6%인 1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장성 청운고가 사거리와 광양·담양·무안 회전교차로 등 4곳에 대해서만 교통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예산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적으로 축소하면서 사업비도 전년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11년 개선사업이 진행된 동구 대인동 대인광장 등 41개소에 대해서는 전년인 2010년 351건에 달하던 사고가 공사 후 124건으로 34.5% 감소했고, 사상자도 625명에서 403명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도로시설물 불량, 교통시설물 추가 설치, 도로 폭 조정 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 교통사고 많은 13곳

※ 2012년 한해동안 광주·전남 29곳 사고 414건·사망 11명·부상 757명 보합사 보상액 92억 6229만원

구분	지점	구분	지점
1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 사거리	나주	세지면 송제리 화담마을 입구 삼거리
2	서구 치평동 세정마을삼거리	영광	덕진면 덕진리 덕진삼거리
3	북구 각화동 각화삼거리	담양	대진면 대치리 월본삼거리
4	북구 우산동 말배우시정삼거리	광양	광양읍 덕래리 덕래삼거리
5	북구 중흥동 무동로 우체국사거리	광양	광양읍 덕래리 한라대 삼거리
6	북구 임동 임동오거리	중흥	간대리 부두삼거리
7	북구 운암동 서영대교삼거리	순천	별량면 봉림리 봉림면사무소 삼거리
8	북구 율봉동 북구 신관위 앞-신안동 남양파크 삼거리	장성	장성읍 영천리 청운고교차로
9	광산구 흑석동 흑석삼거리	목포	상동 해안주유소 오거리
10	광산구 비아동 관산삼거리	목포	목암동 도청입구 사거리-상동 광정주유소 사거리
11	광산구 송정동 열린병원 주차장 입구 사거리-도산동 마트앞삼거리	여수	둔덕동 둔덕 사거리
12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삼거리	보성	보성읍 우산리 우산삼거리
13	남구 주월동 원광대병원삼거리	영광	영광읍 남천리 남천삼거리
		화순	화순읍 민연리 화순우체국사거리
		장흥	장흥읍 순지리 순지삼거리-순지마을 입구

## 목포, 잠자는 중학생 방에 번개탄

# 아버지가 피웠다

### 경찰에 자수, 살인미수 영장

아들이 자는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잠적했던 '비정함' 50대 아버지가 자수했다.

목포경찰은 14일 중학생 아들(14)이 자는 방에 번개탄을 피워 놓은 채 사라진 아버지 A(50)씨가 자수해움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나주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에서 부인(51)과 함께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 나주 경찰에 의해 목포경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일 새벽 집에 들어가 아들이 자는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 아들은 지난 10일 오전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피워놓은 번개탄 연기에 의식을 잃었다가 누나(19)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새벽 아파트 폐쇄회로에 부모가 다녀간 장면이 찍힌 사실을 확인하고

A씨 행적 파악에 나섰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 딸과 "멀리 왔다. 미안하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적을 감췄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상황이 어려워졌던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번개탄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목포 미용실에 흉기 강도

지난 12일 밤 8시40분께 목포시 상동 B미용실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여주인(50)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이 키 170cm의 마른 체격에 상·하의 검은색 옷과 마스크 차림이었다는 여주인의 말을 토대로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광주 유촌동 70대 고물상 정비사업에 내몰려 엄동설한 폐가로 얼음보다 차가운 눈물만...



"주인집에서 나가라는데, 갈 데가 없잖아..."

한만수(75·가명·광주시 서구 유촌동)씨는 최근 며칠 동안 걸어서 5분 거리인 '폐가'에서 뜯어져 나간 철재 대문을 고치고 무너져 내린 지붕·마루를 수리하느라 '고물 수집'을 나가지 못했다. 몸살도 났다. 한씨가 7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귀신 나올 법한 '폐가'를 고치겠다고 매달리는 이유는 단장, 추운 겨울 길바닥에 손녀딸과 나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틀어진 철재 대문 연결 고리를 반듯이 하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망치질을 하는 것도 빨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겨울을 버틸 수 있다는 절박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씨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고물 수집까지 포기하고 영하 6도의 한파에 드라이버와 망치를 들고 갑작스레 폐가 수리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서구는 최근 '상습침수 저지대 정비대상 토지·건물 매입' 사업에 따라 한씨가 세들어 사는 집과 부지(347㎡)를 사들였다. 한씨 집을 비롯, 주변 지대보다 10m 낮은 탓에 매년 여름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인근 두 건물까지 모두 3필지(486㎡)가 대상지다. 박재자 민주당 의원의 요청도 한몫을 했다.

서구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

입한 뒤 한씨는 "3월까지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1년 치 월세 170만원을 내고 살면서 계약 기간은 5월까지 남았지만 서구가 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문제는 한씨가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다. 매년 침수 피해를 당할 때마다 펌프 살 돈조차 없어 고스란히 집에 물이 차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온 것도 이때부터였다. 한씨는 "집이 허물어져 가나 사람이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썼다고 했다.

자신이 딸아 키우는 22살짜리 아들 손녀, 부인(70)과 생활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노인 연금으로 받는 27만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구가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 등 1000만원 못되는 비용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씨가 인근 폐가를 새 집으로 결정한 이유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세입자는 토지나 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외제차 몰던 '김여사' 전기 개폐기 들이받아 정전 소동



상디밭

○-외제차를 몰고 가던 40대 주부가 운전미숙으로 전기개폐기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되는 등 한바탕 소동.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D아파트 사거리에서 A(여·44)씨가 운전하던 크라이슬러 차량이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제어기와 지

상 전기 개폐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D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850여가구가 정전돼 20여분 간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를 구입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철도노조위원장 경찰 출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14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협뉴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실험**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반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세탁비포함)	취향(이벤트포함)	마취(이벤트포함)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요일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Steak 이용요금(별도판별)  
1. 로크 Steak 8,000원  
2. 맥갈비 Steak 9,000원  
3. 비프 Steak 10,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양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콩골레 YONGLE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롤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polo steak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